

군산 새만금 '신항만' 크게 짓는다

전북도, 화물선 대형화 추세 반영 5만t급 2선석 규모 밝혀 총 사업비 1조30억 전액 국비 투입...최종안 6~7월께 확정

군산 새만금 신항만 1단계 개발사업의 규모가 확대된다.

전북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군산의 새만금 신항만 1단계 개발사업을 애초의 2만~3만 t급 4선석(항구에서 배를 대는 자리)에서 5만 t급 2선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국제적으로 화물선의 규모가 커지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전북도는 설명했다.

새만금 신항만 1단계 사업계획을 수립

할 당시인 2010년에는 2만~3만 t급 규모의 접안시설이면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으나 이후 상황이 변하고 있어 조정이 불가피해졌다고 덧붙였다.

인근의 군산항이 2만~3만 t급 31선석 이어서 기능이 겹치는 것도 고려했다.

전북도는 4선석에서 2선석으로 선석 수가 줄지만, 전체 부두 접안시설 길이를 비롯한 항만의 규모는 별 차이가 없다고 전했다.

민간 투자자가 없어, 일부 민자를 유지

하러던 계획도 전액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쪽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해수부는 전체 사업비 1조30억원 가운데 2562억원을 민자로 충당할 방침이었다.

이 과정에서 사업 기간도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연장될 전망이다.

이번 안은 해수부의 '전국 10개 신항만 기능재정립 및 기본계획 변경안'에 담기며 기획재정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오는 6~7월께 확정될 예정이다.

전북도는 2026년 이후 추진될 새만금 신항만 2단계 사업도 당초의 2만~3만 t급 접안시설을 모두 5만 t 이상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새만금 신항만은 새만금 2호 방조제 앞인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와 비안도 중간에 건립된다.

1차로 3.1km 길이의 방파제와 800여m의 접안시설, 118만㎡의 부지로 조성되며 2차로 1조6000여억원을 들여 방파제를 늘리고 접안시설과 부지를 확장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 신항만의 접안 시설 규모와 사업 추진방식 변경은 대체로 우리가 요구해왔던 내용이기도 하다"며 "해수부 및 정치권 등과의 공조를 통해 재정사업 전환 등이 관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정읍시청 공무원 사회환원 활동 '훈풍' '정읍사랑 기술봉사단' 소외계층 방문 도배·장판 손질

정읍시 공무원들의 사회환원 활동이 지역사회에 훈풍을 선물하고 있다.

정읍시에 따르면 시청 공무원으로 구성된 '정읍사랑 기술봉사단'이 지난 23일 장명동 신용호 마을에서 올해 첫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대한건축사협회 정읍시지회 회원들과 마을 주민 등 100여명이 동참했다.<사진>

이날 정읍사랑 기술봉사단 등은 신용호 마을 진입로 주변 100m의 담장을 새롭게 색칠하며 마을의 환경을 개선했다. 또 소외계층 10세대를 방문해 도배·장판과 노후 전기시설 등을 점검·보수하며 사랑을 실천했다.

정읍사랑 기술봉사단은 이날 봉사활동을 시작으로 매월 첫째·셋째 주 토요일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이들의 봉사활동은 오는 11월까지 계속된다.

봉사단 관계자는 "휴일을 이용해 매월 두 차례씩 봉사에 나서고 있는 봉사대원들에게 감사 드린다"며 "작은 재능이라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부하는 문화가 널리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건축사협회 정읍시지회는 매년 후원금과 함께 봉사활동에도 동참하고 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어린이 장난감 집까지 배달해줘요” 순창군, 내달부터

순창군이 4월부터 면사무소까지 배달하던 장난감을 집 앞까지 가져다주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순창군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읍내에 장난감도서관을 개관하고 장난감 6600개를 빌려줬다. 이어 9월부터는 시골지역 어린이들을 위해 면사무소까지 장난감을 배달해 호응을 얻었다.

군은 4월부터 집 앞 배달서비스를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장난감 배달차량이 인계·동계면은 화요일, 적성·유등면은 수요일, 금과·풍산면은 목요일, 팔덕·구림면은 금요일, 북흥·쌍치면은 토요일에 각각 집까지 찾아가는다.

장난감 배달 신청을 홈페이지(www.sctoy.co.kr)에서 받는다.

/순창=정영근 기자 jyg@



순창군은 지난해 장난감도서관을 개관하고 찾아가는 장난감 배달 서비스를 하고 있다. <순창군 제공>

고창군, 장어양식장 유해약품 사용 방지 조사

고창군이 장어양식장의 유해약품 사용 방지를 위한 조사를 진행했다.

고창군은 지역의 뱀장어 양식장 74곳을 대상으로 '수산물 동물용의약품 오남용 및 미승인 물질 불법사용' 조사를 펼쳤다.

이번 조사를 통해 미승인 약품 발견시 압수와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군은 지난 23일 람사르갯벌체험센터에서 뱀장어 양식장 대표와 관리인

80여명을 대상으로 '수산물 동물용 의약품 안전 사용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선 수산물 동물용 의약품 안전 사용 방안과 사용 금지약품 설명,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방안, 위반 시 처벌 규정 등을 안내했다.

교육 참여자들은 수산물 신뢰 회복을 위한 서약서를 작성하며 자성의 시간을 가졌다.

/고창=박형진 기자 phj@

익산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자금 지원

총 500억 규모 농가당 2000만원 한도 내

익산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자금 지원 사업을 전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자금은 총 500억원 규모로 농가당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농립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 특별보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농신보 특별보증은 연체여부 등 필수사항 심사만 통과하면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보증이 가능하며 보증비율도 기존 85%에서 95%로 높아진다.

사업 대상자는 2018년 9월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완료농가 제외)다.

자금 사용 용도는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하는데 필요한 축량비, 설계비, 철거비, 시설비 개·보수비, 퇴비사 신축이다.

지원받은 농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완료해야 한다.

지원 형태는 중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융자 80%(연1%·5년 거치 10년 상환), 자부담 20%다.

사업 기간은 올해 9월 27일(적법화 이행기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희망자는 오는 4월 3일까지 축사과에 관련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남원시, 가정양육아동 '엄마애' 간식비 지원

4월부터 전국 처음...600명에 매달 1만원씩

남원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4월부터 가정양육아동에게 엄마애(에)간식비를 지원한다.

26일 남원시에 따르면 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돌보고 있는 아동(86개월 미만) 600명에게 매달 1만원(년 12만원)을 간식비로 제공한다.

간식비는 바우처 방식으로 제공하며 가맹점(176개소)에서 아이에게 필요한 간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5일(주)푸르미코리아(대표 홍영복)와 업무협약을 체결하

고 상호 협조해 가정양육아동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남원시 엄마애(에)사업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살기 좋은 남원 실현을 위해 지난해 기획된 사업이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저출산 문제는 국가뿐만 아니라 지자체 존망을 위협하고 있다"며 "남원시는 이 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남원실현을 위해 시책개발에 더욱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세얼굴

“더불어 잘사는 농촌만들기 최선”

김경진 농어촌공사 정읍지사장



“더불어 잘사는 농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장으로 부임한 김경진 지사장은 “농업과 농촌을 단순한 생산영역만이 아닌 생활과 복지공간으로 조성하는데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지사장은 또 “급변하는 농정에 맞추어 농촌과 도시가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사회를 만들어 가는데도 힘쓰겠

다”고 말했다.

정읍 출신인 김 지사장은 지난 1991년에 입사한 이래 본사 농지규모화사업처, 농지은행처, 전북지역본부,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 분양마케팅부장, 토지개발사업단 토지관리부장 등을 역임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사무실 전용 매매

-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339 (현대극장 바로 옆)
- 20층중 3층 302호, 38평(전용 약 23평)
- 하천방향, 전체 올수리, 사무실 전용
- 관리비 저렴, 주차편리, 대출 3천만원 가능
- 보5백만원에 월60만원에 임대가능
- 시세 - 1억 2000만원 정도
급매 - 7500만원(일시불)
문의. 010-6834-7400